

# 신태용호, 러시아 월드컵 '청신호'

## 손흥민·구자철·기성용 등 유럽과 맹활약에 16강 진출 기대 석현준도 활약...이청용·지동원, 출전 경쟁서 사실상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6개월여 앞둔 신태용호가 유럽과 선수들의 활약에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유럽과 중 월드컵 출전을 사실상 예약한 선수는 에이스 손흥민(26·토트넘)과 간판 미드필더 기성용(29·스완지시티),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 권창훈(25·디종), 황희찬(22·잘츠부르크) 등 5명이다.

석현준(27·트루아)은 손흥민 투톱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와 김신욱(30·전북) 등과 경쟁하고 있다.

반면 이청용(30·크리스탈 팰리스)과 지동원(27·아우크스부르크)은 지금 상태로는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고부적인 건 월드컵 참가가 유력한 유럽과 5인방이 소속 리그에서 맹활약한다는 점이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AFF) E-1 챔피언십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후 관바로 보름 일정의 유럽 출장에 나서 월드컵에 나설 선수들을 점검했다.

유럽과는 E-1 챔피언십에 참가하지 않은 데다 이달 22일부터 2주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도 불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를 겨울 휴식이 겹쳐 구자철과 황희찬의 경기를 보지 못

다. 석현준은 신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대를 맞히는 등 불운 속에 득점에 실패했다.

신 감독은 지난 3월에는 토트넘과 스완지시티 간 맞대결이 열린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을 찾았지만 기성용이 부상 여파로 결장해 '코리안 데비'가 불발됐다. 손흥민도 신태용 감독 앞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신 감독이 귀국하고 나서 유럽과 태극전사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14일 잉글랜드와 독일, 프랑스에서 뛰는 신태용호 주전들이 일제히 활약하며 '코리안 데이'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날 에버턴과 경기에서 선제 결승 골을 포함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4-0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의 리그 8호 골이자 시즌 11호 골이다. 더욱이 손흥민은 지난달 스톡홀름시전을 시작으로 인방에서 5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면서 2004년 저메인 데포 이후 토트넘 선수로는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홀 5경기 연속 골' 기록을 달성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러시아 월드컵 16강에 도전하는 신태용 감독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신 감독은 유럽과 점검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5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을 만났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활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토트넘에서 맹활약하는 손흥민이 대표팀에 와서도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이 다.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원톱을 맡

을 수도 있고, 소속팀에서 해리 케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투톱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신 감독으로서 불운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월드컵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즐거움 고민'을 이어가게 됐다.

기성용의 복귀도 신 감독으로서의 기본 소식이다.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왔던 기성용은 지난해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무릎 염증 제거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종아리 부상 여파로 5경기 연속 결장했다.

다행히 기성용은 이날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며 건재를 알렸다.

기성용은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공수 연결 고리는 물론 유럽과 후배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맡는다.

또 득점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구자철도 이날 함부르크전에서 마수길이 골을 신고했다.

구자철은 대표팀의 미드필더전에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선 손흥민의 투톱 파트너로 나설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리그앙1부리그에서 뛰는 권창훈은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리그앙의 공격수 석현준은 세 경기 연속 득점 사냥에 실패했지만 풀타임 활약하며 오는 3월 평가전 때 대표팀에 소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청용과 지동원은 이날 경기에도 나란히 결장하면서 러시아 월드컵 경쟁에서 밀리게 됐다.

장면도 압권이었다.

미드필드 라인으로부터 길게 온 팽볼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에버턴 수비수가 접근하자 마르세유엔(축구공을 한 발로 잡은 상황에서 이 발을 축으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상대를 따돌리는 기술)으로 따돌렸다. 실전에서 보기 힘든 기술이다.

이를 반영하듯 EPL 공식 홈페이지는 이날 2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소속 EPL 최다골(98골) 기록을 갈아치운 해리 케인과 함께 손흥민으로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뉴스



성화봉송 주자 나선 양학선, 정대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서울 첫 날인 지난 13일 아이돌 그룹 1.O.I 출신의 소미, 축구선수 정대세, 체조선수 양학선, 몬스타엑스(주현·서누·기현·형원·민혁·원호·아이엘) 등 아이돌부터 스포츠 스타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이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성화봉송주자로 나서며 서울을 짜릿한 희망의 불빛으로 밝혔다.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이자 제17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인 양학선과 SBS '동상이몽'을 통해 활약 중인 일본 리그 시미즈 에스펄스 소속 축구선수 정대세는 승려로 인공에서 성화봉송에 나섰다. /코카콜라 제공

## 원윤종-서영우 빠진 봅슬레이, 캐나다·독일선수들 '썩썩' 韓선수들은 평창서 맹훈련 중... 올림픽 치열한 경쟁 전망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인 원윤종(33·강원도청)-서영우(27·경기BS경기연맹) 조가 빠진 국제무대에서 캐나다, 독일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원윤종-서영우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팀들은 한국시간으로 13일 밤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7차 대회 남자 봅슬레이 2인승 부문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했다.

니코 발터-크리스티안 포저 조는 1, 2차 시기 합계 2분10초72,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토르스텐 마르키스 조는 2분10초77, 요하네스 로흐너-크리스토퍼 베버 조는 2분10초93을 기록했다. 캐나다의 저스틴 크립스-제시 램스덴 조는 2분11초12로 4위에 올랐다.

이 캐나다 팀은 현재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있다. 올 시즌 7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수확했다.

세계랭킹 2위는 독일의 프리드리히-마르키스 조로, 지금까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프리드리히-마르키스 조는 평창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원윤종-서영우 조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다. 대표팀의 이용 총감독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출국하면서 "프리드리히 조를 넘어설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원윤종-서영우는 올 시즌 3차 대회까지 마치고 국내 훈련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해 현재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굵은 팻말을 쏟고 있다.

4~7차 대회에서 포인트를 전혀 쌓지 못한 원윤종-서영우의 월드컵 세계랭킹은 현재 20위로 처져 있다.

이들은 1차 대회에서 10위, 2차(이상 미국레이크플래시드에서

13위, 3차(캐나다 휘슬러)에서 6위에 올랐다.

썰매는 홈이점이 큰 종목이다. 세계에는 IBSF 공식 인증을 받은 트랙이 16개 있는데, 저마다 코스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경기가 열리는 트랙에서 가장 많이 썰매를 타본 개최국 선수가 유리하다.

원윤종-서영우가 월드컵을 중도에 포기하고 평창으로 돌아온 배경이다.

썰매의 홈이점과 관련해 올 시즌 흥미로운 성적을 올려 눈길을 끄는 팀이 있다.

미국의 코디 바스큐-카를로 발데스 조는 자국에서 열린 올 시즌 1, 2차 대회에서 각각 동, 금메달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열린 3차 대회부터는 성적이 곤두박질했다. 3차(캐나다) 16위, 4차(독일) 19위, 5차(오스트리아) 7위, 6차(독일) 18위, 7차(스위스) 20위에 그쳤다. 현재 세계랭킹은 11위다.

## 손흥민, 토트넘 홈 5경기 연속골

손흥민(26·토트넘)의 강활함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집어삼켰다.

손흥민은 14일 오전 2시30분(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EPL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0 원승을 이끌었다.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10일 스톡

시티와의 16라운드를 시작으로 12월 14일 브라이튼 호브 앨비언전(17라운드), 12월26일 사우샘프턴전(20라운드), 이달 5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2라운드)에 이어 이날까지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에 앞서 2004년 저메인 데포가 달성한 적이 있는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은 역대 토트넘 선수의 리그 홈 최다 연속경기 골 기록이다.

이날 해리 케인의 2번째 골을 돕는



# 주식회사 와우

TOUR·DESIGN

- ✦ 항공권 예약서비스
- ✦ 해외여행 예약서비스
- ✦ 제주도여행 예약서비스
- ✦ 국내여행 예약서비스

- ✦ 대한항공
- ✦ 아시아나항공
- ✦ 렌트카, 숙박 예약서비스
- ✦ 후불제 여행
- ✦ 법인기관/워크샵/골프투어
- ✦ 허니문/효도여행/패키지/비자대행
- ✦ 후불제여행
- ✦ 울릉도, 독도, 홍도/내륙여행

##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p><b>즐거움 제주여행패키지</b></p> <p>항공 ✈️ 숙박 🏠</p> <p>렌트카 🚗 골프 🏌️</p> <p>단체 문의 환영</p>	 <p><b>일본</b></p> <p>오사카 949,000~</p> <p>기타큐슈 749,000~</p> <p>카고시마 950,000~</p>	 <p><b>라오스</b></p> <p>1,390,000~</p>	 <p><b>캄보디아</b></p> <p>989,000~</p>
 <p><b>베트남</b></p> <p>다낭 699,000~</p> <p>하노이 799,000~</p> <p>하롱베이 799,000~</p>	 <p><b>필리핀</b></p> <p><b>보라카이</b></p> <p>449,000~</p>	 <p><b>대만</b></p> <p>599,000~</p>	

http://wow-tour.com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9, 5층(동림동) Tel 062-522-7767